

News

은행권, 오늘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장 유리한 곳은?

데일리안

오늘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시행... 은행권에서는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6곳이 경쟁에 뛰어들어...SC, 광주, 대구, 전북 등 4개 은행은 이달 중 참여 계획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 다만 비대면에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단기간 API 구축에 따른 완성도 저하 등은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지적

신한은행,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기술 검증 완료... "송금까지 35초"

뉴스1

신한은행,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해외송금 기술에 대한 검증 작업 완료... 첫 번째 검증 대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 선택
검증 완료했으나 실제 서비스화는 충분한 법률 및 규제 검토 이후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계획

주담대도 100% 온라인으로 선점 나선 은행들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말 기준 한국 가계 신용대출 757조원 중 15%인 112조원이 온라인 대출을 통해 실행... 시중은행들, 온라인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에 발을 들여...
KB국민, 부동산 빅데이터 망라한 KB부동산 앱 오픈... 신한은행, 네이버부동산과 연계해 전세대출 시행... 법무법인 제휴 및 자체 앱 고도화, 전문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모습

은행권 칼바람은 옛말... 40대도 명예퇴직 올라간다

조선비즈

은행권, 대규모 명예퇴직 중... 주요 은행들, 12월 중 명예퇴직 신청자 받을 예정... 올해는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로 운영
구조조정 단행하며 명예퇴직 조건 확대하는 추세 영향... 요즘은 정년 퇴직 희망하는 행원이 드물어... 소매금융 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직원들까지도 대거 신청

당국 車 보험료 인하 가능성 검토...손보업계 난감

머니투데이

금융당국, 내년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앞서 일부 손해보험사에 보험료 인하 타진... 손해율 개선과 호실적, 대선 앞두고 정무적 판단 가능성 제기
최소 동결을 예상했던 손보사들은 난감한 표정... 위드코로나 이후 자동차 사고 건수가 늘고 있어 손해액이 연말 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금융위, 4세대 실손 판매 부진... '보험료 인상'으로 만회 나서나?

머니S

금융당국, 1·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구상 중... 건강보험연구원, 12월 3일까지 산출내용 점검하고 12월 6일부터 당국과 논의 시작 예정
해마다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다만 4세대 실손보험 판매량이 부진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기존 상품보다 불리하다고 여기기 때문... 보험사의 소극적 판매도 영향

증권사 '일상 속 투자' 초점...초개인화 자산관리 시동

한국금융신문

오늘 금투업계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시행...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가 나설 예정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되면 자산관리 대중화로 시장 규모 커질 것으로 예상... 자산관리 시장에서의 지각 변동도 전망

랩어카운트 시장 규모 150조 육박... 변동성 장세에 인기몰이

머니S

변동성 장세에 랩어카운트 시장 규모 150조원에 육박... 수요가 커지자 증권사들도 다양한 랩어카운트 상품 선보이며 고객 확보 중
당분간 증시 조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적극적 마케팅과 더불어 랩어카운트 인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